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경험과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신경증의 매개효과*

최 연 수

유 성 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이 공격성과 신경증을 매개로 성인이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성인 696명을 대상으로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 척도, 성격장애 진단검사,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K-AQ), 간편형 한국어 BEI(K-BFI)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는 공격성이 부분 매개하였고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는 공격성과 신경증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는 공격성이 가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고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는 공격성과 신경증이 부분 매개하였다. 더불어 집단 따돌림 피해경험과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의 관계는 정서적 공격성만이 매개하였고,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은 이들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이 공격성을 매개로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을 발달시키는 과정을 지지하지만, 신경증의 매개 역할은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만 국한됨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청소년기에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사람들이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을 발달시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공격성과 신경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심리적 개입 프로그램이 유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집단 따돌림, 반사회적 성격, 경계선 성격, 공격성, 신경증

* 본 논문은 제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2017년 한국임상심리학회 가을 학술대회에서 포스터 발표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유성은 / 충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 Tel : 043-261-3612 / E-mail : syou@chungbuk.ac.kr

집단 따돌림(bullying)은 일반적으로 의도성, 지속성, 힘의 불균형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대인관계 폭력으로 정의되며, 이는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에서부터 언어적 폭력, 또래 관계에서 배척시키거나 고립시키는 형태의 관계적 또는 사회적 따돌림,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따돌림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Hymel & Swearer, 2015). 세계보건기구(WHO)가 4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 발생률은 피해 경험의 경우 2-32%, 가해 경험은 1-36%였고(WHO; Currie et al., 2012), 교육부에서 실시한 2017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발생률은 16.4%였다(교육부, 2017). 아동·청소년기는 발달적으로 성격을 형성하고 심리적, 신체적으로 성숙되어가는 시기이기도 하며 고통스러운 감정들을 통합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때 경험하는 집단 따돌림은 아동·청소년기 뿐 아니라 성인기까지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 문제나 대인관계 어려움 등의 다양한 부적응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Goodman, New, & Siever, 2004; McDougall & Vailancourt, 2015). 또한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과 같은 외상 경험은 이들의 정서 조절 능력, 자기 정체성 발달,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수 보고되었다(김환, 한수미, 2015; Caspi, Roberts, & Shiner, 2005; Hengartner, 2018; Neyer & Asendorpf, 2001; Roberts & Mroczek, 2008; Shiner, Allen, & Masten, 2017). 이를 뒷받침하듯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사람이 성격장애를 발달시킬 위험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남성은 1.2배, 여성은 약 4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Antila

et al., 2017).

이처럼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경험은 성격장애의 잘 알려진 위험요인이며(Hengartner, Ajdacic-Gross, Rodgers, Müller, & Rössler, 2013), 이 중에서도 특히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Bender & Lösel, 2011; Copeland, Wolke, Angold, & Costello, 2013; Sansone, Lam, & Wiederman, 2010).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은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고 범죄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졌으며(Renda, Vassallo, & Edwards, 2011; Sourander et al., 2007), 경계선 성격장애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인 자해행동 및 자살사고와도 유의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었다(Mayes et al., 2014; Reed, Nugent, & Cooper, 2015). 특히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이후에는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 범죄행동 등과 같은 반사회적 성격의 특징이 두드러지는데(Bender & Lösel, 2011; Ttofi, Farrington, Lösel & Loeber, 2011), Bender와 Lösel(2011)은 따돌림 가해 경험이 성인기의 반사회적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위험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따돌림 가해 집단은 피해 집단에 비해 공격성과 범죄 행동이 증가하고 문제를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추구하는 범죄적 사고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Ragatz, Anderson, Fremouw, & Schwartz, 2001). 한편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이후 나타나는 정서 불안정성, 자기 파괴적인 행동, 충동성 등의 특징은 경계선 성격장애 증상과 유사한데(Sansone, Lam, & Wiederman, 2010), 연구자들은 아동기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의 위험성을 증

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Wolke, Schreier, Zanarini, & Winsper, 2012).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아동 · 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경험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시사하지만 이 발달 과정에 작용하는 심리적인 기제가 무엇인지는 명확하지 않다(Leichsenring, Leibing, Kruse, New, & Leweke, 2011).

아동 · 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경험이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장애의 발달에 미치는 과정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두 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격 특질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반사회적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범법 행위,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무시하는 무모한 행동과 같은 특징과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나타나는 분노조절의 어려움, 자기 파괴적인 행동 등은 공격성이라는 특질을 공통적으로 수반하는 증상들이다. 이처럼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가 공격성 특질을 공유하고 있지만 각 성격장애와 관련이 높은 공격성의 하위요인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보고되었다(Fossati et al., 2007).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성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관련이 높았고 과민성, 죄책감, 분노와 같은 정서적인 공격성은 경계선 성격장애와 관련이 높았다(Fossati et al., 2004; Fossati et al., 2007). 국내 연구에서도 유사하게 원한, 부정성과 같은 정서적인 측면의 공격성은 경계선 성격과,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같은 직접적인 공격 행동은 반사회적 성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임지영, 황순택, 2011). 이와 다르게 Sansone와 Sansone(2012)는 경계선 성격장애 역시 신체적 공격성과 같은 외부화된 공격 행동을 나타내기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은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같은 공격 행동과 관련이 높고 경계선 성격장애는 주로 정서적인 공격성과 관련이 있지만 경계선 성격장애 역시 직접적인 공격행동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공격성이 빈번하게 표출될 경우, 사회 집단으로부터 거부당하거나 타인과의 관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는데(김정규, 2011; Crick, 1996), 사회로부터의 고립 및 거부는 우울 및 자존감 저하의 위험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살생각과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Hall-Lande, Eisenberg, Christenson, & Neumark-Sztrainer, 2007). 이처럼 공격성이 외부가 아닌 자신에게로 향할 경우에는 자해 및 자살시도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격장애에서 공격성은 임상적으로 주목해야 하는 중요한 특질이며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 장애 발달에 기여하는 공통 특질이기도 하다(Bowes, Wolke, Joinson, Lereya, & Lewis, 2014; Kim & Leventhal, 2008; Látalová & Praško, 2010).

둘째, 신경증은 부정적인 성격발달 뿐 아니라 여러 정신 병리와 관련이 높은 대표적인 성격특질로(Griffith et al., 2010; Ormel et al., 2013; Widiger, 2011) 공격성과 마찬가지로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장애를 모두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국내외 연구에서 보고되었다(황순택, 윤훈, 이숙희, 2008; Samuel & Widiger, 2008). 신경증은 정서적 불안정성으로 정의되기도 하는데 신경증이 높은 사람은 불안,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종종 경험하고 충동적이고 사소한 자극에도 쉽게 화를 내는 특징을 보인다(McGrae & John, 1992). 신경증의 주요 특징 중 적대감과 충동성은 반사회적 성격장애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무책임성,

범법행위 등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 선행 특질이며(Trull, Widiger, & Burr, 2001), 심한 감정 변화와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경증적 경향은 범죄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중수, 2008). 또한 신경증은 경계선 성격장애 발달에 기여하는 핵심적인 선행 특성 변인으로(Kendler, Myers, & Reichborn-Kjennerud, 2011) 경계선 성격장애의 정체성 혼란, 충동성, 적대감, 우울 및 불안, 자해 행동 증상은 신경증적 특질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Clarkin, Hull, Cantor, & Sanderson, 1993; Herpertz et al., 1997; Links et al., 2007; Roy, 2002).

성격특질은 생득적이고 비교적 안정적인 특성으로 알려져 있지만(Caspi & Roberts, 2001) 전 생애에 걸쳐 변화할 수 있으며 삶의 중요한 사건이나 정신적 외상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변화될 수 있다(Biedorn, Hopwood, & Lucas, 2018; Roberts & Mroczek, 2008; Srivastava, John, Gosling, & Potter, 2003). 성격특질은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환경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점차적으로 발달하는데(McAdams & Olson, 2010) Roberts와 Jackson (2008)은 성격특질의 발달이 특정 경험에 의해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장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공격성과 신경증 역시 생득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기여하는 성격 특질이지만 개인의 경험과 학습을 통해 발달될 수 있다(Huesmann, 1988; Orle, Rubin, & Siegler, 2014). 연구자들은 공격성이 아동·청소년기와 초기 성인기에 주로 발달한다고 보고하였다(Loeber & Hay, 1997). 아동·청소년기는 학교를 포함한 주요 생활환경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며 또래와의 관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공격성을 학습하고 공격적인 행동에 관여하게 되는데, 경험과 학습을 통해 누적된 공격성은 성인기까지 지속될 수 있다(Huesmann, 1988). 아동기의 외상사건과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경험은 신경증의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Lüdtke, Roberts, Trautwein, & Nagy, 2011; Roy, 2002). 또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신경증에 대한 유전적인 설명력은 50% 이하이며(Boomsna et al., 2018), Goldberg(2001)는 특히 생애 초기의 경험들이 신경증 발달에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Roy(2002)는 아동기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외상사건이 신경증의 발달에 주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였는데, 독일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단연구에 따르면 개인, 가족, 환경 등을 포함하는 부정적인 생활사건의 경험이 신경증을 증가시켰다(Lüdtke, Roberts, Trautwein, & Nagy, 2011).

이러한 보고들과 유사하게 아동·청소년기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부정적인 사건인 집단 따돌림이 반사회적 성격과 경계선 성격의 공통적인 특질인 공격성과 신경증을 발달시킬 가능성이 보고되었다(Ford, 2002; Lösel & Bender, 2011). 선행연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은 공격성을 증가시키며(Ragatz, Anderson, Fremouw, & Schwartz, 2010; Vaillancourt, Brittain, McDougall, & Duku, 2013), 경험자들을 부정적인 정서에 빈번하게 노출되게 하여 우울과 불안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든다(Bond, Carlin, Thomas, Rubin, & Patton, 2001; Malti, Perren, & Buchmann, 2010; Siegel, La Greca, & Harrison, 2009). 정익중과 이지연(2012)은 학교 내에서 또래관계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시기에 따

돌림을 경험할 경우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이를 해소하고 방어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격성을 표출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뿐 아니라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을 한 경우에도 공격성이 증가할 수 있다.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격성의 변화를 살펴본 종단연구에 따르면 매년 평균적으로 이들의 공격성이 증가하였다(Lösel & Bender, 2011). 또한 따돌림 피해경험은 우울을 더 빈번하게 경험하게 하고(Gibb, Abramson, & Alloy, 2004) 개인을 우울 및 불안에 더 취약하게 만들며(조주영, 오인수, 2014; Hanish & Guerra, 2002) 이러한 우울 및 불안에 대한 취약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보고되었다(Ford, 2002; La Greca & Harrison, 2005; Ttofi, Farrington, Lösel & Loeber, 2011). 따돌림 가해 경험 역시 피해 경험과 마찬가지로 정서적 불안정성을 경험하게 하는데, 불안정한 정서와 급작스러운 정서의 변화가 빈번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가해 경험 이후 증가했다고 보고되었다(Coolidge, DenBoer, & Segal, 2004).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경험이 반사회적 성격장애와 경계선 성격장애로 발달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임상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 발달과정에 관여하는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집단 따돌림 경험과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장애의 관계를 살펴보거나, 또는 성격장애의 발달에서 성격특질의 역할을 밝히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경험이 성격특질, 구체적으로 공격성과 신경증을 매개로 하여 반사회적 성격과 경계선

성격을 발달시킬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하였다. 위에서 기술한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설정한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를 공격성과 신경증이 매개할 것이다. 둘째,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를 공격성과 신경증이 매개할 것이다. 셋째,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를 공격성과 신경증이 매개할 것이다. 넷째,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를 공격성과 신경증이 매개할 것이다. 더불어 선행 근거는 부족하지만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분노감과 적대감) 공격성이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능하는 지를 탐색하기 위해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위에서 열거한 네 개의 매개모형에 준하여 알아 보았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836명 중 연구 대상자에 적합하지 않은 연령자인 경우($n = 28$), 연령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n = 21$), 설문 중간에 응답을 중단한 경우($n = 70$), 모든 문항을 동일한 번호로 응답한 경우($n = 27$)에 해당하는 146명을 제외한 696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 중 남성은 271명(38.9%), 여성은 425명(61.1%)이었고, 평균 연령은 22.96세($SD = 2.56$)였다. 본 연구는 심리학 전공 및 교양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심리학과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참가자모집시스템과 인터넷 게시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설문을 게시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고 연구 설명을 읽고 자발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참가자모집시스템을 통해 설문을 완료한 참가자에게는 참가한 연구의 소요시간에 따라 학과에서 규정한 강의 참여 크레딧을 부여하였고, 인터넷 게시판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설문을 완료한 참가자들은 추첨을 통해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 소속 기관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측정도구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 척도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집단 따돌림 가해, 피해 척도(최은숙, 2000)를 사용하였다. 원 척도에서는 집단 따돌림 경험 기간을 ‘지난 한 학기’로 제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맞게 이를 ‘아동·청소년기’로 지시문을 변경하여 제시하였다. 본 척도는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에 대해 각 15문항씩,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0점: 전혀 없었다, 4점: 일주일에 여러 번)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집단 따돌림 가해와 피해 경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최은숙, 채준호(2000)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Cronbach's α) 가해 경험 .80, 피해 경험 .85였고 본 연구에서는 가해 경험 .82, 피해 경험 .91로 나타났다.

성격장애 진단검사(The Diagnostic Test for Personality Disorder)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은 황순택(1995)이 개발한 성격장애 진단 준거목록에 기반하여 서재삼과 황순택(2006)이 개발한 성격장애 진단 검사(The Diagnostic Test for Personality Disord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10개의 성격장애 증상을 측정하도록 개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반사회적 성격과 경계선 성격을 측정하는 문항 28개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4점 척도(1점: 전혀 아니다, 4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본 연구에서 반사회적 성격과 경계선 성격은 임상적 수준의 성격장애가 아닌 연속선상의 성격 특성으로 가정하여 측정하였다. 서재삼과 황순택(2006)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Cronbach's α) 반사회적 성격장애 .70, 경계선 성격장애 .72였고 본 연구에서는 반사회적 성격장애 .70, 경계선 성격장애 .77로 나타났다.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The 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K-AQ)

공격성은 Buss와 Perry(1992)가 개발한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를 서수균과 권석만(2002)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K-AQ)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과 적대감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하게 되어있다. 서수균과 권석만(2002)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는(Cronbach's α) .8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8로 나타났다.

간편형 한국어 BFI(the Korean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K-BFI)

신경증은 John과 Srivastava(1999)가 개발한 성격 5요인 질문지(Big Five Inventory, BFI)를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2011)이 한국어로 번안, 타당화한 간편형 한국어 BFI(the Korean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K-BFI)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신경증 문항 3개만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5점: 매우 그렇다)로 평정된다.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2011)의 연구에서 신경증 하위요인의 신뢰도는(Cronbach's α) .75였고 본 연구에서는 .85였다.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SPSS 21.0을 사용하여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가설인 집단 따돌림 가해와 피해 경험이 공격성과 신경증을 매개로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Hayes(2013)가 개발한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매개효과를 분석하였고,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집단 따돌림 가해와 피해를 모두 경험한 중복 경험을 고려하여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모형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은 피해 경험을 통제 후 실시하였고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모형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은 가해 경험을 통제 후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

의 관계에서 공격성 하위요인(신체적 공격성, 언어적 공격성, 분노감,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집단 따돌림 경험과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 그리고 공격성과 신경증 변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 먼저 반사회적 성격과 경계선 성격은 중등도 이상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r = .66, p < .01$. 반사회적 성격은 따돌림 가해 경험, $r = .29, p < .01$, 따돌림 피해 경험, $r = .16, p < .01$, 공격성, $r = .51, p < .01$, 신체적 공격성, $r = .46, p < .01$, 언어적 공격성, $r = .34, p < .01$, 분노감, $r = .39, p < .01$, 적대감, $r = .30, p < .01$, 신경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10, p < .05$. 유사하게 경계선 성격도 따돌림 가해 경험, $r = .17, p < .01$, 따돌림 피해 경험, $r = .31, p < .01$, 공격성, $r = .63, p < .01$, 신체적 공격성, $r = .47, p < .01$, 언어적 공격성, $r = .22, p < .01$, 분노감, $r = .60, p < .01$, 적대감, $r = .51, p < .01$, 신경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51, p < .01$. 집단 따돌림 경험과 공격성, 공격성의 하위요인, 신경증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피해 경험은 공격성, $r = .31, p < .01$, 신체적 공격성, $r = .16, p < .01$, 언어적 공격성, $r = .11, p < .01$, 분노감, $r = .19, p < .01$, 적대감, $r = .37, p$

표 1.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및 기술통계(N=696)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 반사회적 성격	-									
2 경계선 성격	.66**	-								
3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29**	.17**	-							
4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16**	.31**	.29**	-						
5 공격성	.51**	.63**	.36**	.31**	-					
6 신체적 공격성	.46**	.47**	.39**	.16**	.79**	-				
7 언어적 공격성	.34**	.22**	.26**	.11**	.58**	.40**	-			
8 분노감	.39**	.60**	.18**	.19**	.76**	.49**	.34**	-		
9 적대감	.30**	.51**	.22**	.37**	.76**	.38**	.17**	.45**	-	
10 신경증	.10*	.51**	-.02	.27**	.40**	.19**	-.06	.34**	.55**	-
M	42.28	34.35	22.54	22.73	58.18	17.78	11.75	11.48	17.16	8.46
SD	5.08	5.76	5.82	9.01	14.18	5.35	3.69	4.05	6.24	3.13

주. 6-9번은 공격성 척도(AQ)의 하위요인임.

* $p < .05$. ** $p < .01$.

< .01, 신경증 모두와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나, $r = .27, p < .01$, 가해 경험은 공격성과, $r = .36, p < .01$,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공격성, $r = .39, p < .01$, 언어적 공격성, $r = .26, p < .01$, 분노감, $r = .18, p < .01$, 적대감과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 = .22, p < .01$. 예상과 달리 가해 경험은 신경증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아, $r = -.02, p = .68$ 이후의 분석에서 가해 경험과 경계선,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에서 신경증의 매개효과 모델 검증은 제외되었다.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신경증의 매개효과와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이 공격성과 신경증을 매개로 반사회적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 각각에 대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고 가해 모형에서는 피해 경험을, 피해 모형에서는 가해 경험을 통제된 후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상관분석 결과 가해 경험과 신경증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매개모형에서는 신경증을 제외하고 공격성의 매개분석만 실시하였다. 또한 변인들 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에 앞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변인들의 VIF값은 모두 2미만, 공차한계는 .6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첫째,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을 예측변인으로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후 이들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표 2.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성인기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신경증의 매개효과

매개모형 1: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 공격성 → 성인기 반사회적 성격						
단계	예측변인	결과변인	B	S.E.	t	p
1	가해경험 →	반사회적 성격	.23	.03	6.88	.000
2	가해경험 →	공격성	.73	.09	8.29	.000
3	가해경험 →	반사회적성격	.11	.03	3.40	.001
	공격성 →	반사회적성격	.17	.01	13.04	.000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95% 신뢰구간						
매개변인			Indirect Effect	Boot S.E.	LLCI	ULCI
공격성			.122	.020	.087	.164
매개모형 2: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 공격성, 신경증 → 성인기 반사회적 성격						
단계	예측변인	결과변인	B	S.E.	t	p
1	피해경험 →	반사회적 성격	.05	.02	2.25	.025
2	피해경험 →	공격성	.35	.06	6.15	.000
	피해경험 →	신경증	.10	.01	7.93	.000
3	피해경험 →	반사회적성격	.00	.02	.11	.916
	공격성 →	반사회적성격	.18	.01	13.18	.000
	신경증 →	반사회적성격	-.17	.06	-2.85	.005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95% 신뢰구간						
매개변인			Indirect Effect	Boot S.E.	LLCI	ULCI
공격성			.064	.013	.039	.091
신경증			-.02	.007	-.032	-.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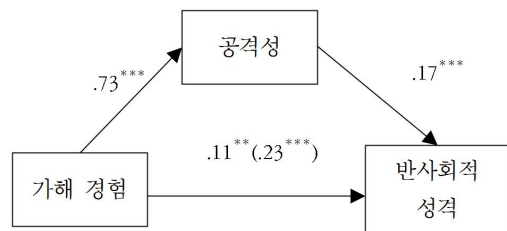
주. LLCI = 95% 신뢰구간 하한한계; ULCI = 95% 신뢰구간 상한한계.

분석하였다. 먼저 1단계 분석에서 예측변인인 가해 경험이 결과변인인 반사회적 성격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23$, $p = .000$. 이는 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반사회적 성격특성이 높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2

단계 분석 결과 가해 경험은 매개변인인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B = .73$, $p = .000$. 이는 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3단계 분석에서 공격성이 반사회적 성격에 미치는 경로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 = .17, p = .000$, 매개변인인 공격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해 경험이 반사회적 성격에 미치는 경로도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11, p = .001$. 즉,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를 공격성이 부분 매개하였다(그림 1).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공격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122, Boot 표준오차는 .020으로 매개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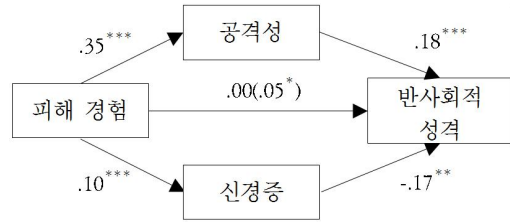
둘째,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신경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분석에서 예측변인인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결과변인인 반사회적 성격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5, p = .025$. 2단계 분석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매개변인인 공격성과, $B = .35, p = .000$, 신경증에 이르는 경로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10, p = .000$. 이는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과 신경증 수준이 모두 높아짐을 의미한다. 3단계 분석에서 공격성은 높을수록, $B = .18, p = .000$, 반사회적 성격과 관련이 있



주. 괄호 안의 경로 값은 매개변인 투입 전 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1$. *** $p < .001$.

그림 1.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모형



주. 괄호 안의 경로 값은 매개변인 투입 전 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신경증의 매개모형

었으나, 예상과 달리 신경증은 낮을수록 반사회적 성격과 관련이 있었다, $B = -.17, p = .005$. 매개변인인 공격성과 신경증을 통제한 상태에서 반사회적 성격에 대한 피해 경험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0, p = .916$. 즉,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를 공격성과 신경증이 완전 매개하였다(그림 2).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높은 공격성과 낮은 신경증을 매개로 반사회적 성격특성을 발달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64, Boot 표준오차는 .013, 신경증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2, Boot 표준오차는 .007로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2).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과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신경증의 매개효과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신경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SPSS PROCESS macro를 사용하여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 각각에 대해 매

개분석을 실시하였고 가해 모형에서는 피해 경험을, 피해 모형에서는 가해 경험을 통제 한 후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표 3). 상관분석 결과 가해 경험과 신경증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가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매개모형에서는 신경증을 제외하고 공격성의 매개분석만 실시하였다. 위 모형과 마찬가지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변인들의 모든 VIF는 .2미만, 공차한계는 .6이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첫째,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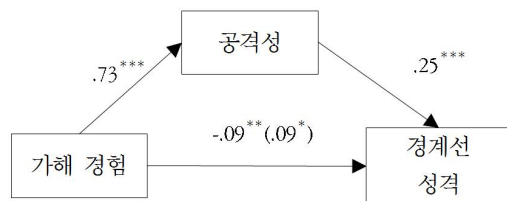
표 3.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신경증의 매개효과

매개모형 3: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 공격성 → 성인기 경계선 성격						
단계	예측변인	결과변인	B	S.E.	t	p
1	가해경험 →	경계선 성격	.09	.04	2.48	.014
2	가해경험 →	공격성	.73	.09	8.29	.000
3	가해경험 →	경계선 성격	-.09	.03	-2.91	.004
	공격성 →	경계선 성격	.25	.01	19.46	.000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95% 신뢰구간			
매개변인			Indirect Effect	Boot S.E.	LLCI	ULCI
공격성			.183	.027	.135	.237
매개모형 4: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 공격성, 신경증 → 성인기 경계선 성격						
단계	예측변인	결과변인	B	S.E.	t	p
1	피해경험 →	경계선 성격	.18	.02	7.48	.000
2	피해경험 →	공격성	.35	.06	6.15	.000
	피해경험 →	신경증	.10	.01	7.49	.000
3	피해경험 →	경계선 성격	.05	.02	2.78	.006
	공격성 →	경계선 성격	.20	.01	15.35	.000
	신경증 →	경계선 성격	.53	.06	9.23	.000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95% 신뢰구간			
매개변인			Indirect Effect	Boot S.E.	LLCI	ULCI
공격성			.071	.014	.046	.101
신경증			.055	.010	.038	.077

주. LLCI = 95% 신뢰구간 하한한계; ULCI = 95% 신뢰구간 상한한계.

분석한 결과, 1단계 분석에서 예측변인인 가해 경험이 결과변인인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9$, $p = .014$. 2단계 분석에서 가해 경험은 매개변인인 공격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B = .73$, $p = .000$, 이는 따돌림 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3단계 분석에서 공격성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 = .25$, $p = .000$, 매개변인인 공격성을 통제 한 후에도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 $B = -.09$, $p = .004$. 즉,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를 공격성이 부분 매개하였으나 공격성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후에는 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경계선 성격 발달 가능성이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그림 3).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공격성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183, Boot 표준오차는 .027로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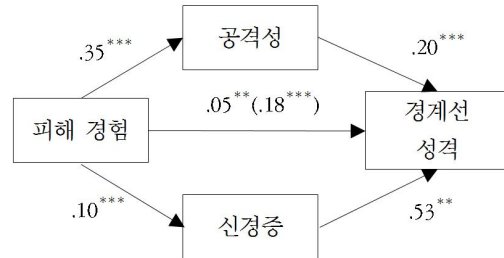
둘째,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신경증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분석에서 예측변인인 집



주. 괄호 안의 경로 값은 매개변인 투입 전 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3.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모형



주. 괄호 안의 경로 값은 매개변인 투입 전 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1$. *** $p < .001$.

그림 4.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과 신경증의 매개모형

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결과변인인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18$, $p = .000$. 2단계 분석에서 피해 경험이 매개변인인 공격성과, $B = .35$, $p = .000$, 신경증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10$, $p = .000$. 3단계 분석에서 공격성과, $B = .20$, $p = .000$, 신경증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 = .53$, $p = .000$, 매개변인인 공격성과 신경증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 한 후에도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5$, $p = .006$. 즉,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를 공격성과 신경증이 부분 매개하였다(그림 4). Bootstrapping 결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71, Boot 표준오차는 .014, 신경증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55, Boot 표준오차는 .010으로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3).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과의 관계에서 신체적, 언어적, 정

서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분노감, 적대감) 공격성 별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 각각에 대해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찬가지로 가해 모형에서는 피해 경험을, 피해 모형에서는 가해 경험을 통제 후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표 4).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변인들의 모든 VIF는 .2미만, 공차한계는 .6이

상으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첫째,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을 예측변인으로 반사회적 성격을 결과변인으로 설정한 후 이들의 관계에서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1단계 분석에서 예측변인인 가해 경험이 결과변인인 반사회적 성격에 이르는 직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23, p = .000$. 2단계 분석 결과 가해 경험은 매개변인인 신체적 공격성, $B = .34, p = .000$, 언어적 공격성, $B = .16, p = .000$, 분노감, $B = .09, p = .001$, 적대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 $B = .13, p =$

표 4.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성인기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하위요인의 매개효과

매개모형 1: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 공격성 하위요인 → 성인기 반사회적 성격						
단계	예측변인	결과변인	B	S.E.	t	p
1	가해경험 →	반사회적 성격	.23	.03	6.88	.000
2	가해경험 →	신체적 공격성	.34	.03	10.22	.000
	가해경험 →	언어적 공격성	.16	.02	6.52	.000
	가해경험 →	분노감	.09	.03	3.49	.001
	가해경험 →	적대감	.13	.04	3.39	.001
	가해경험 →	반사회적성격	.09	.03	2.75	.006
3	신체적 공격성 →	반사회적성격	.24	.04	5.98	.000
	언어적 공격성 →	반사회적성격	.20	.05	3.98	.000
	분노감 →	반사회적성격	.20	.05	3.99	.000
	적대감 →	반사회적성격	.07	.03	2.17	.030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매개변인	Indirect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신체적 공격성	.081	.017	.050	.119
언어적 공격성	.031	.010	.015	.053
분노감	.019	.010	.007	.038
적대감	.009	.005	.001	.023

표 4.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성인기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하위요인의 매개효과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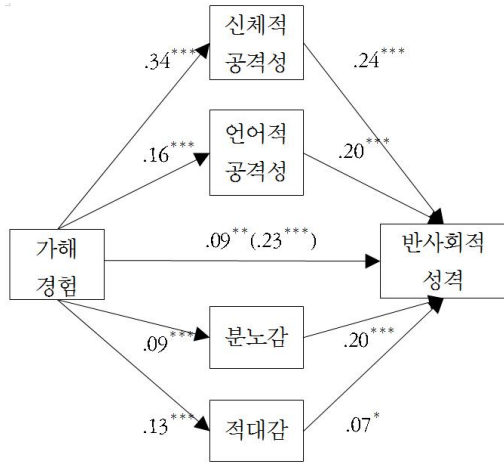
매개모형 2: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 공격성 하위요인 → 성인기 반사회적 성격						
단계	예측변인	결과변인	B	S.E.	t	p
1	피해경험 →	반사회적 성격	.05	.02	2.25	.025
2	피해경험 →	신체적 공격성	.03	.02	1.60	.110
	피해경험 →	언어적 공격성	.02	.02	1.06	.289
3	피해경험 →	분노감	.07	.02	3.80	.000
	피해경험 →	적대감	.23	.03	9.13	.000
	피해경험 →	반사회적성격	.01	.02	.37	.712
	신체적 공격성 →	반사회적성격	.24	.04	5.98	.000
	언어적 공격성 →	반사회적성격	.20	.05	3.98	.000
	분노감 →	반사회적성격	.20	.05	4.00	.000
	적대감 →	반사회적성격	.07	.03	2.17	.030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매개변인	Indirect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신체적 공격성	.008	.007	-.002	.022
언어적 공격성	.003	.003	-.002	.011
분노감	.013	.005	.005	.026
적대감	.016	.008	.002	.033

주. LLCI = 95% 신뢰구간 하한한계; ULCI = 95% 신뢰구간 상한한계.

.001. 이는 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정서적 공격성인 분노감, 적대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3단계 분석에서 신체적 공격성, $B = .24, p = .000$, 언어적 공격성, $B = .20, p = .000$, 분노감, $B = .20, p = .000$, 적대감이 반사회적 성격에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 = .07, p = .030$, 매개변인인 공격성의 하위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해 경험이 반사회적 성격에 미치는 경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9,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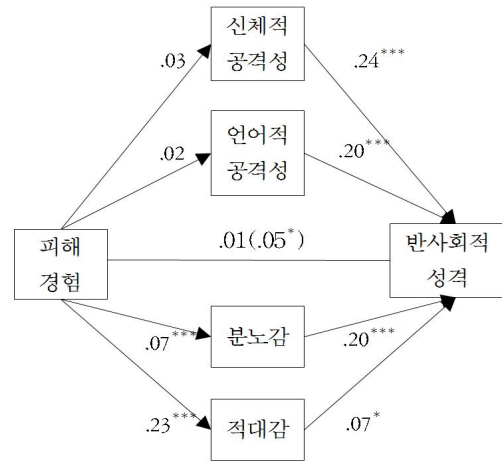
$= .006$. 즉,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를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공격성(분노감 및 적대감)이 부분 매개하였다(그림 5).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신체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81, Boot 표준오차는 .017, 언어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31, Boot 표준오차는 .010, 분노감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19, Boot 표준오차는 .010, 적대감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09,



주. 괄호 안의 경로 값은 매개변인 투입 전 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5.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모형



주. 괄호 안의 경로 값은 매개변인 투입 전 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5$. *** $p < .001$.

그림 6.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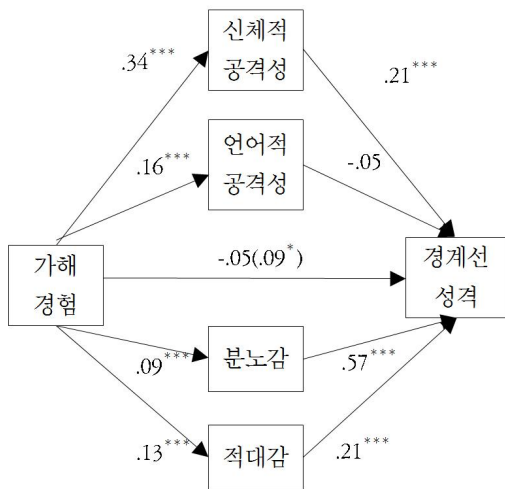
Boot 표준오차는 .005로 공격성의 모든 하위요인의 매개효과가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둘째,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분석에서 예측변인인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결과변인인 반사회적 성격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5$, $p = .025$. 2단계 분석에서는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매개변인인 분노감, $B = .07$, $p = .000$, 적대감에 이르는 경로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 = .23$, $p = .000$, 피해 경험이 신체적 공격성, $B = .03$, $p = .110$, 언어적 공격성에 이르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2$, $p = .289$. 이는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정서적 공격성인 분노감과 적대감은 높아지지만, 피해 경험이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을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

미한다. 3단계 분석에서 신체적 공격성, $B = .24$, $p = .000$, 언어적 공격성, $B = .20$, $p = .000$, 분노감, $B = .20$, $p = .000$, 적대감이 반사회적 성격에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7$, $p = .030$. 매개변인인 공격성의 하위요인을 통제된 상태에서 반사회적 성격에 대한 피해 경험의 직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1$, $p = .712$. 즉,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를 정서적 공격성인 분노감과 적대감이 완전 매개하였다(그림 6).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분노감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13, Boot 표준오차는 .005, 적대감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16, Boot 표준오차는 .008로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셋째,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분석에서 예측변인인 가해 경험이 결과변인인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9$, $p = .014$. 2단계 분석에서 가해 경험은 매개변인인 신체적 공격성, $B = .34$, $p = .000$, 언어적 공격성, $B = .16$, $p = .000$, 분노감, $B = .09$, $p = .001$, 적대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는데, $B = .13$, $p = .001$, 이는 따돌림 가해 경험이 많을수록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정서적 공격성(분노감 및 적대감)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3단계 분석에서 신체적 공격성, $B = .21$, $p = .000$, 분노감, $B = .57$, $p = .001$, 적대감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 = .21$, $p = .000$, 언어적 공격성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5$, $p = .091$. 매개변인인 공격성의 하위요인을 통제한 후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이 경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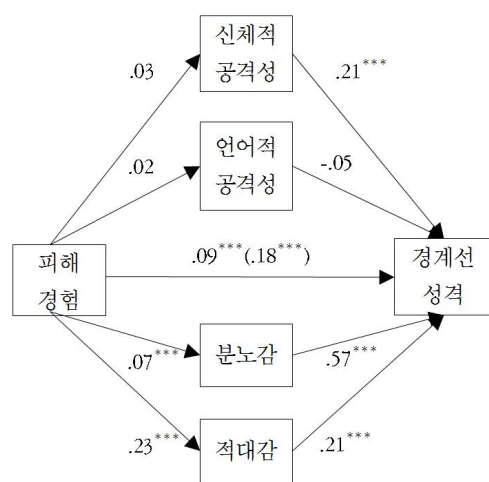
선 성격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5$, $p = .091$. 즉,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를 신체적 공격성과 정서적 공격성(분노감 및 적대감)이 완전 매개하였다(그림 7).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신체적 공격성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71, Boot 표준오차는 .015, 분노감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54, Boot 표준오차는 .016, 적대감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27, Boot 표준오차는 .009로 95%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넷째,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1단계 분석에서 예측변인인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결과변인인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18$, $p = .000$. 2단계 분석에서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주. 괄호 안의 경로 값은 매개변인 투입 전 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5$. *** $p < .001$.

그림 7.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모형



주. 괄호 안의 경로 값은 매개변인 투입 전 표준화된 경로계수

*** $p < .001$.

그림 8.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모형

표 5.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매개모형 1: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 공격성 하위요인 → 성인기 경계선 성격						
단계	예측변인	결과변인	B	S.E.	t	p
1	가해경험 →	경계선 성격	.09	.04	2.48	.014
2	가해경험 →	신체적 공격성	.34	.03	10.22	.000
	가해경험 →	언어적 공격성	.16	.02	6.52	.000
	가해경험 →	분노감	.09	.03	3.49	.001
	가해경험 →	적대감	.13	.04	3.39	.001
	가해경험 →	경계선 성격	-.05	.03	-.69	.091
3	신체적 공격성 →	경계선 성격	.21	.04	5.44	.000
	언어적 공격성 →	경계선 성격	-.05	.05	-.98	.329
	분노감 →	경계선 성격	.57	.05	11.69	.000
	적대감 →	경계선 성격	.21	.03	6.63	.000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매개변인	Indirect Effect	Boo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신체적 공격성	.071	.015	.045	.106	
언어적 공격성	-.008	.008	-.026	.008	
분노감	.054	.016	.024	.087	
적대감	.027	.009	.012	.048	

매개모형 2: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 공격성 하위요인 → 성인기 경계선 성격						
단계	예측변인	결과변인	B	S.E.	t	p
1	피해경험 →	경계선 성격	.18	.02	7.48	.000
2	피해경험 →	신체적 공격성	.03	.02	1.60	.110
	피해경험 →	언어적 공격성	.02	.02	1.06	.289
	피해경험 →	분노감	.07	.02	3.80	.000
	피해경험 →	적대감	.23	.03	9.13	.000
	피해경험 →	경계선 성격	.09	.20	4.49	.000
3	신체적 공격성 →	경계선 성격	.21	.04	5.44	.000
	언어적 공격성 →	경계선 성격	-.05	.05	-.98	.329

표 5.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효과 (계속)

단계	예측변인	결과변인	B	S.E.	t	p
	분노감 →	경계선 성격	.57	.05	11.69	.000
	적대감 →	경계선 성격	.21	.03	6.63	.000
매개효과에 대한 Bootstrapping 결과						
95% 신뢰구간						
매개변인	Indirect Effect	Boot S.E.	LLCI	ULCI		
신체적 공격성	.007	.001	-.010	.020		
언어적 공격성	-.001	.001	-.005	.001		
분노감	.038	.011	.017	.060		
적대감	.048	.010	.031	.068		

주. LLCI = 95% 신뢰구간 하한한계; ULCI = 95% 신뢰구간 상한한계.

이 매개변인인 분노감과, $B = .07$, $p = .000$, 적대감에 미치는 영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B = .23$, $p = .000$, 피해경험이 신체적 공격성과, $B = .03$, $p = .110$, 언어적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2$, $p = .289$. 3단계 분석에서 신체적 공격성, $B = .21$, $p = .000$, 분노감, $B = .57$, $p = .000$, 적대감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B = .21$, $p = .000$, 언어적 공격성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B = -.05$, $p = .329$. 매개변인인 공격성의 하위요인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된 후에도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경계선 성격에 미치는 직접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B = .09$, $p = .000$. 즉,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를 정서적 공격성인 분노감과 적대감이 부분 매개하였다(그림 8). Bootstrapping 결과, 분노감의 매개효과 계수값은 .038, Boot 표준오차는 .011, 적대감의 매개

효과 계수값은 .048, Boot 표준오차는 .010으로 95% 신뢰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표 5).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성인기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 작용하는 심리적 기제로서 공격성과 신경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는 공격성이 부분 매개하였고,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는 공격성과 신경증이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는 공격성이 부분 매개를,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는 공격성과 신경증이 부분 매개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동 · 청소년기 집단 따돌림이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을 발달시키는 데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지지함과 동시에 이러한 성격 발달 과정에서 공격성과 신경증이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먼저 아동 · 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경험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에 대한 연구 모형 검증 결과는 아동 · 청소년기에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를 경험한 개인이 반사회적 성격을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공격성이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이 공격성의 증가를 예측하며(Lösel & Bender, 2011; Ragatz, Anderson, Fremouw, & Schwartz, 2010) 공격성이 반사회적 성격의 주요 특성인 동시에 반사회적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힌 선행연구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다(Fossati et al., 2007). Bandura(1978)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공격성은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되며 타인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 행동을 따라하는 모델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이를 고려해볼 때, 집단 따돌림 가해 행동은 부적응적인 행동이지만 역설적으로 또래 집단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원하는 것을 얻는 경험을 제공하기도 하여 공격성이 주는 보상을 학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이춘재, 박금주, 2000). 아동 · 청소년기에 가해 경험을 통해 학습된 공격성이 반복적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개인의 부적응적인 성격 특질로 발달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반사회적 성격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분노와 공격성을 유발시키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격성을 외부로 표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Higgins, Piquero, & Piquero, 2011). 즉, 피해

경험을 통해 학습된 공격성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반사회적인 행동 및 범죄행위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Farrington, 2005).

아동 · 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성인기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에서 신경증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는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통해 신경증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Ford, 2002; Hanish & Guerra, 2002; Ford, 2002; La Greca & Harrison, 2005)와 일치하는 결과이나 신경증적 특질이 반사회적 성격 및 범죄행위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 보고한 선행연구들(김중수, 2008; Trull, Widiger, & Burr, 2001)과는 상충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의 단순상관분석 결과에서는 신경증과 반사회적 성격이 경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 = .10$),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공격성을 함께 고려한 중다회귀 모형에서 신경증은 반사회적 성격과 부적 관계를 나타냈다($B = -.17$). 다중공선성의 문제일 가능성을 확인해 보았으나 본 자료에서 이 가능성은 지지되지 못했다. 한 가지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신경증과 반사회적 성격 및 범죄행위와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들의 표본이 대부분 외래환자(Trull, Widiger, & Burr, 2001), 소년원생(김중수, 2008)을 포함하고 있었던 반면, 본 연구는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표본에 따른 차이일 가능성이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개인 내 신경증과 공격성 수준의 높고 낮음에 따른 조합에 따라 신경증과 반사회적 성격의 관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 이후 공격성 수준이 높고 신경증 수준은 낮은 경우 공격성과 신경증 수준이 모두 높은 경우보다 반사회적 성격이 더 발달할 가능성

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들을 모두 차원적(dimensional) 방식으로 측정하였고 높은 수준을 정의할만한 객관적 기준(절단점)이 불명확하여 이를 통계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아동·청소년기 발달과정에서 신경증과 반사회적 성격 발달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를 이해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신경증과 공격성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 이들의 매개효과는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에서 다소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은 이들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공격성을 통제된 이후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은 경계선 성격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은 공격성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통해 경계선 성격 발달을 설명하였고, 공격성이라는 심리적 특성이 통제된 상황에서는 오히려 경계선 성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공격성을 통제된 이후 나타난 가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부적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기 어렵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이후 증가된 공격성이 경계선 성격 발달에 중요한 심리적 요인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공격성이 경계선 성격을 설명해주는 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황순택, 윤훈, 이숙희, 2008; Clarkin, Hull, Cantor, & Sanderson, 1993; Fossati et al., 2004).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는 공격성과 신경증이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

돌림 피해 경험과 성인기 경계선 성격장애의 관계는 높은 공격성과 높은 신경증을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매개변수를 통제된 후 이 둘 관계의 직접효과도 감소하긴 했으나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유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경계선 성격을 발달시키는 과정에서 공격성과 신경증이 모두 중요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함을 의미한다. 공격성의 매개효과는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공격성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며(Craig, 1997; Vaillancourt, Brittain, McDougal, & Duku, 2013) 공격성이 경계선 성격을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인임을 설명한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 한다(Fossati et al., 2004). Fossati 등(2004)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인해 증가되는 공격성은 죄책감, 분노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인 공격성일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집단 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개인은 스트레스나 부정적인 정서경험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공격성이 유발될 수 있는데(정익중, 이지인, 2012)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서 경계선 성격장애를 발달시킬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과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신경증의 매개효과는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이 불안정한 정서를 야기하며 부정적인 정서를 지속적으로 경험하도록 만드는 위험요인임을 밝힌 선행연구들(조주영, 오인수, 2014; Ford, 2002; Gibb, Abramson, & Alloy, 2004; Hanish & Guerra, 2002)과 정서의 불안정성과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한 신경증이 경계선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 설명한 연구들(Clarkin, Hull, Cantor, & Sanderson, 1993; Roy, 2002; Samuel & Widiger, 2008; Trull &

Burr, 2001)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즉,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으로 인해 반복적으로 초래되는 부정적인 정서경험은 신경증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가된 신경증을 통해 경계선 성격발달의 위험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신경증은 다양한 정신장애의 발병 및 자살관련 행동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요인임이 보고된바 있어(Herpertz, Strinmeyer, Muehlbauer, & Sass, 1997; Links et al., 2007; Widiger, 2011) 발달과정에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집단 따돌림 경험으로 인해 경험하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잘 조절하고 이를 적절한 형태로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과 달리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신경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상관을 보이지 않아 가해 경험에 대한 매개모형 검증에서 신경증을 제외하였다. 이는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신경증의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Coolidge, DenBoer, & Segal, 2004)와 상충되는 결과이다. 가해 경험과 신경증의 관계를 보고한 Coolidge 등(2004)의 연구는 1년에 최소 3번 이상 상담사에게 상담을 받은 중학생 41명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일반 인구에서 가해 경험은 신경증과 유의한 관계가 없을 가능성을 시사하였으나 이에 대한 반복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으로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과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서 공격성의 하위요인인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분노감, 적대감) 공격성과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다. 매개분석 결과, 공격성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는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에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은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공격성을 매개로 반사회적 성격에 신체적, 정서적 공격성을 통해 경계선 성격에 영향을 미쳤지만,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은 분노감과 적대감의 정서적 공격성만을 매개로 하여 반사회적 성격과 경계선 성격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반사회적 성격은 신체적, 언어적 공격성과 관련이 높고 경계선 성격은 정서적 공격성과 관련이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임지영, 황순택, 2011; Fossati et al., 2004)와 경계선 성격 역시 신체적 공격성과 같은 직접적인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Sansone와 Sansone(2012)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무엇보다 집단 따돌림 피해 경험자가 정서적 공격성을 매개로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집단 따돌림 피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분노감, 적대감을 적절히 해소할 수 있는 심리적 개입이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과 같은 부적응적 성격의 발달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경계선 성격의 경우 정서적 공격성뿐만 아니라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이후 증가된 신체적 공격성에 의해서도 발달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 이후 증가된 신체적 공격성이 경계선 성격의 자기 파괴적인 행동과 타인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될 수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동 · 청소년의 공격성 감소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공격성의 감소를 위해서는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태도변화와 친사회적인 기술 학습이 효과적인 개입방법이라고 설명하였다(Grossman et al., 1997; Hudley et al., 1998; Ostrov et al., 2008). Grossman 등(199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분노 및 충동조

절, 공감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프로그램 종료 6개월 이후에도 신체적인 공격성 감소와 또래와의 관계 형성 및 원만한 갈등 해결과 같은 친사회적인 행동의 증가가 지속되었다. Hudley 등(1998)은 초등학교 3-6학년을 대상으로 타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적절하게 해석하기, 부정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비공격적인 행동으로 반응하기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6주에 걸쳐 진행하였다. 개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친사회적인 행동이 증가하고 공격적인 행동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신경증 감소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인식하고 이를 조절 및 긍정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치료적인 개입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하였다(Deplus, Billieux, Scharff, & Philippot, 2016). 신경증적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부정적 사고 및 분노 감정을 인식하여 이완훈련과 역할극 등을 통해 이를 적절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인지행동적 집단치료를 적용한 결과, 분노 수준과 공격성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천성문, 이영순, 이현림, 2000). 또한 마음 챙김에 기반을 둔 인지 치료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확인하고 이를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청소년과 우울한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결과 정서 조절 능력 향상과 우울 및 신경증 감소에 효과적이었다(Deplus, Billieux, Scharff, & Philippot, 2016; Spinhoven, Huijbers, Ormel, & Speckens, 2017).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의 검토를 통하여 집단 따돌림 가해와 피해를 경험한 개인들에 대하여 공격성과 신경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여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척도와 아동·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경험을 성인기에 회고하여 응답하는 방식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기억편향의 오류가 자료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성격특질과 집단 따돌림 경험 간의 인과적인 관련성을 설계하였으나 본 연구의 가설과는 반대로 성격특질이 집단 따돌림 경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경증이나 공격성이 상당부분 생득적인 기질적 특성이기도 하기 때문에 공격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이 가해행동을 더 많이 했을 가능성, 신경증이 높은 아동·청소년이 따돌림 피해 대상이 될 가능성 등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신경증과 공격성이 순수하게 집단 따돌림 가해 및 피해 경험에 의해 발달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성격이론에서 기질은 생득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 발달되고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인 사건이 기질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환경적 요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성격병리에 영향을 미치는 기질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호 인과성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을 모두 갖고 있는 경우 본 연구에서 설정한 매개가설이 달라지는 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 집단 따돌림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보아 가해와 피해 경험을 모두 해 본 경우도 상당부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집단 따돌림은 모두 차원적 변인으로 측정되어 집단을 분류할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었

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해 모형에서는 피해 경험을, 피해 모형에서는 가해 경험을 각각 통제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이들 집단을 분류할 수 있는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집단에 따른 차이를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제시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 · 청소년기 집단 따돌림 경험과 성인기 반사회적, 경계선 성격의 관계에 관여하는 심리적 매개변인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집단 따돌림 경험과 성격장애의 관계를 일관적으로 보고해왔으나(Bender & Lösel, 2011; Sansone, Lam, & Wiederman, 2010) 이 둘의 관계에 관여하는 과정 변인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었다. 특히 성격병리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성격특성을 기반으로 발달되는 병리로 성격발달에 중요한 아동청소년기에 집단 따돌림과 같은 부정적인 환경적 자극이 성격 병리와 관련이 높은 성격특성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더불어 반사회적 성격과 경계선 성격에 공통적으로 기여하는 성격 특성인 공격성과 신경증이 가해경험과 피해경험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가해와 피해 경험이 공격성의 하위요인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 따돌림을 경험한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 즉 성격장애의 발달을 완화시키기 위해 어떠한 심리학적 개입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가해 경험과 피해 경험에 따라 차별적인 추후 개입이 도움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집단 따돌림 가해 행동을 보인 아동 ·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들의 공격행동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며, 피해 경험을

한 아동 · 청소년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험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화,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잘 다루고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가 공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심리적 개입이 유용할 것이다. 이에 앞서 무엇보다 아동 ·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에서 집단 따돌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임상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7). 2017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및 개편방안. 교육부.
- 권재기 (2011). 집단 따돌림 피해경험의 발달 양상과 내면화 · 외면화 문제행동의 변화-잠재계층 성장분석(LCGA) · 다집단 성장혼합모형(GM M)을 이용한 중단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4, 95-126.
- 김정규 (2011). 청소년 자살 생각-사회적 유대, 일탈 행동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영향. *현상과인식*, 35(1/2), 175-202.
- 김종수 (2008). 범죄청소년의 성격차원 성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10), 268-277.
- 김지현, 김복환, 하문선 (2011). 간편형 한국어 BFI(Big Five Inventory) 타당화 연구. *인간이해*, 32(1), 47-65.
- 김 환, 한수미 (2015). 대인외상충격이 자기체계 손상에 미치는 영향에서 초발연령의 조절 효과. *상담학연구*, 16(4), 45-63.
- 서수균, 권석만 (2002). 한국판 공격성 질문지의 타당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1(2), 487-501.

- 서재삼, 황순택 (2006). 한국형 성격장애 진단 검사의 개발과 타당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5(1), 273-288.
- 이춘재, 곽금주 (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3(1), 65-80.
- 임지영, 황순택 (2011). 경계선과 반사회성 성격병리에서의 충동성과 공격성 비교.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1), 71-92.
- 정익중, 이지연 (2012). 학대와 따돌림이 청소년기 우울과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23(2), 217-242.
- 조주영, 오인수 (2014). 청소년의 학교폭력 경험유형과 유형변화 및 정서문제 간의 관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5(4), 301-323.
- 천성문, 이영순, 이현림, (2000). 신경증적 비행 청소년의 분노조절을 위한 인지행동적 집단치료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1), 53-82.
- 최은숙 (2000).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은숙, 채준호 (2000). 집단따돌림 가해, 피해 경향과 관련된 심리적 요인에 관한 일 연구. *인간이해*, 21, 109-137.
- 황순택, 윤훈, 이숙희 (2008). DSM-IV 성격장애와 성격 5요인 간의 관계.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7(3), 777-787.
- Antila, H., Arola, R., Hakko, H., Riala, K., Riiipinen, P., & Hanttojärvi, L. (2017). Bullying involvement in relation to personality disorders: A prospective follow up of 508 inpatient adolescents.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6(7), 779-789.
- Bandura, A. (1978). Social learning theory of aggression. *Journal of Communication*, 28(3), 12-29.
- Bender, D., & Losel, F. (2011). Bullying at school as a predictor of delinquency, violence and other anti-social behaviour in adulthood.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1(2), 99-106.
- Bleidorn, W., Hopwood, C. J., & Lucas, R. E. (2018). Life events and personality trait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86(1), 83-96.
- Bond, L., Carlin, J. B., Thomas, L., Rubin, K., & Patton, G. (2001). Does bullying cause emotional problems? A prospective study of young teenagers. *The British Medical Journal*, 323(7311), 480-484.
- Boomsma, D. I., Helmer, Q., Nieuwboer, H. A., Hottenga, J. J., de Moor, M. H., van den Berg, S. M., ... de Geus, E. J. (2018). An extended twin-pedigree study of neuroticism in the netherlands twin register. *Behavior Genetics*, 48(1), 1-11.
- Bor, W., McGee, T. R., & Fagan, A. A. (2004). Early risk factors for adolescent antisocial behaviour: an Australian longitudinal study.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38(5), 365-372.
- Bowes, L., Wolke, D., Joinson, C., Lereya, S. T., & Lewis, G. (2014). Sibling bullying and risk of depression, anxiety, and self-harm: A prospective cohort study. *Pediatrics*, 134(4), 1032-1039.
- Caspi, A., & Roberts, B. W. (2001). Personality

- development across the life course: The argument for change and continuity. *Psychological Inquiry*, 12(2), 49-66.
- Caspi, A., Roberts, B. W., & Shiner, R. L. (2005). Personality development: Stability and chang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6(1), 453-484.
- Clarkin, J. F., Hull, J. W., Cantor, J., & Sanderson, C. (1993).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and personality traits: A comparison of SCID-I/BPD and NEO-PI. *Psychological Assessment*, 56(1), 472-476.
- Coolidge, F. L. DenBoer, J. W. & Segal, D. L. (2004). Personality and neuropsychological correlates of bullying behavio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7), 1559-1569.
- Copeland, W. E., Wolke, D., Angold, A., & Costello, E. J. (2013). Adult psychiatric outcomes of bullying and being bullied by peer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JAMA Psychiatry*, 70(4), 419-426.
- Cramer, P. (2016). Childhood precursors of adult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The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204(7), 494-499.
- Crick, N. R. (1996). The role of overt aggression, relational aggression, and prosocial behavior in the prediction of children's future soci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5), 2317-2327.
- Currie, C., Zanotti, C., Morgan, A., Currie, D., DeLooze, M., Roberts, C., ... Barnekow, V. (2012).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and well-being among young people. Health Behaviour in School-aged Children (HBSC) study: International report from the 2009/2010 survey. Health Policy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No. 6. Copenhagen, Denmark: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 Deplus, S., Billieux, J., Scharff, C., & Philippot, P. (2016). A mindfulness-based group intervention for enhancing self-regulation of emotion in late childhood and adolescence: A pilot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4(5), 775-790.
- Farrington, D. P. (2005). Childhood origins of antisocial behavior.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2(3), 177-190.
- Ford, J. D. (2002). Traumatic victimization in childhood and persistent problems with oppositional-defiance.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6(1), 25-58.
- Fossati, A., Barratt, E. S, Carretta, I., Leonardi, B., Grazioli, F., & Maffei, C. (2004). Predicting borderline and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features in nonclinical subjects using measures of impulsivity and aggressiveness. *Psychiatry Research*, 125(2), 161-170.
- Fossati, A., Barratt, E. S., Borroni, S., Villa, D., Grazioli, F., & Maffei, C. (2007). Impulsivity, aggressiveness, and DSM-IV personality disorders. *Psychiatry Research*, 149(1), 157-167.
- Gibb, B. E., Abramson, L. Y., & Alloy, L. B. (2004). Emotional maltreatment from parents, verbal peer victimization, and cognitive vulnerability to depression.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8(1), 1-21.
- Giegling, I., Olgiati, P., Hartmann, A. M., Calati, R., Moller, H. J., Rujescu, D., & Serretti, A. (2009). Personality and attempted suicide. Analysis of anger, aggression and impulsivity.

-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43(16), 1262-1271.
- Goldberg, D. (2001). Vulnerability factors for common mental illnesses.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178(40), 69-71.
- Goodman, M., New, A., & Siever, L. (2004). Trauma, genes and the neurobiology of personality disorders.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032(1), 104-116.
- Grossman, D. C., Neckerman, H. J., Koepsell, T. D., Liu, P., Asher, K. N., Beland, K., ... Rivaram F. P. (1997). Effectiveness of a violence prevention curriculum among children in elementary school: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7(20), 1605-1611.
- Griffith, J. W., Zinbarg, R. E., Craske, M. G., Mineka, S., Rose, R. D., Waters, A. M., & Sutton, J. M. (2010). Neuroticism as a common dimension in the internalizing disorders. *Psychological Medicine*, 40(7), 1125-1136.
- Hall-Lande, J. A., Eisenberg, M. E., Christenson, S. L., & Neumark-Sztainer, D. (2007). Social isolation, psychological health, and protective factors in adolescence. *Adolescence*, 42(166), 265-286.
- Hanish, L. D., & Guerpa, N. G. (2002). A longitudinal analysis of patterns of adjustment following peer victimization.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4(1), 69-89.
- Hengartner, M. P. (2018). Developmental course of child personality traits and their associations with externalizing psychopathology: Results from a longitudinal multi-informant study in a representative cohor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73(1), 164-172.
- Hengartner, M. P., Ajdacic-Gross, V., Rodgers, S., Muller, M., & Rossler, W. (2013). Childhood adversity in association with personality disorder dimensions: New findings in an old debate. *European Psychiatry*, 28(8), 476-482.
- Herpertz, S., Gretzer, A., Steinmeyer, E. M., Muehlbauer, V., Schuerkens, A., & Sass, H. (1997). Affective instability and impulsivity in personality disorder. Results of an experimental stud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44(1), 31-37.
- Higgins, G. E., Piquero, N. L., & Piquero, A. R. (2011). General strain theory, peer rejection, and delinquency/crime. *Youth & Society*, 43(4), 1272-1297.
- Hudley, C., Britsch, B., Wakefield, W. D., Smith, T., Demorat, M., & Cho, S. (1998). An attribution retraining program to reduce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5(3), 271-282.
- Huesmann, L. R. (1988). An information processing model for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ggressive Behavior*, 14(1), 13-24.
- Hymel, S., & Swearer, S. M. (2015). Four decades of research on school bullying: An introduction. *American Psychologist*, 70(4), 293-299.
- Kendler, K. S., Myers, J., & Reichborn-Kjennerud, T. (2011).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raits and their relationship with dimensions of normative personality: A web-based cohort and twin study.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123(5), 349-359.

- Kim, Y. S., & Leventhal, B. (2008). Bullying and suicide. A review. *International Journal of Adolescent Medicine and Health, 20*(2), 133-154.
- La Greca, A. M., & Harrison, H. M. (2005). Adolescent peer relations, friendships, and romantic relationships: Do they predict social anxiety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4*(1), 49-61.
- Látalová, K., & Praško, J. (2010). Aggression in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Psychiatry Quarterly, 81*(3), 239-251.
- Leichsenring, F., Leibing, E., Kruse, J., New, A. S., & Leweke, F. (2011).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The Lancet, 377*(9759), 74-84.
- Links, P. S., Eynan, R., Heisel, M. J., Barr, A., Korzekwa, M., McMain, S., & Ball, J. S. (2007). Affective instability and suicidal ideation and behavior in patient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disorder. *Journal of Personality Disorders, 21*(1), 72-86.
- Loeber, R., & Hay, D.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Th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1), 371-410.
- Lösel, F., & Bender, D. (2011). Emotional and antisocial outcomes of bullying and victimization at school: A follow-up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3*(2), 89-96.
- Ljüdtke, O., Roberts, B. W., Trautwein, U., & Nagy, G. (2011). A random walk down university avenue; Life paths, life events, and personality trait changes at the transition to universit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3), 620-637.
- Malti, T., Perren, S., & Buchmann, M. (2010). Children's peer victimization, empathy, and emotional symptoms. *Child Psychiatry and Human Development, 41*(1), 98-113.
- Mayer, S. D., Baweja, R., Calhoun, S. L., Syed, E., Mahr, F., & Siddiqui, F. (2014). Suicide ideation and attempts and bully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Crisis The Journal of Crises Intervention and Suicide Prevention, 35*(5), 301-309.
- McAdams, D. P., & Olson, B. D. (2010). Personality development: continuity and change over the life course. *Th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1*(1), 517-542.
- McCrae, R. R., & John, O. P. (1992). An introduction to the five-factor model and its ap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60*(2), 175-215.
- McDougall, P., & Vaillancourt, T. (2015). Long-term adult outcomes of peer victimiz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merican Psychologist, 70*(4), 300-310.
- Moore, S. E., Norman, R. E., Suetani, S., Thomas, H., Sly, P. D., & Scott, J. G. (2017). Consequences of bullying victimization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World Journal of Psychiatry, 7*(1), 60-76.
- Neyer, F. J., & Asendorpf, J. B. (2001). Personality-relationship transaction in young adulthood.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1*(6), 1190-1204.
- Ogle, C. M., Rubin, D. C., & Siegler, I. C. (2014). Changes in neuroticism following

- trauma exposure. *Journal of Personality*, 82(2), 93-102.
- Ormel, J., Jeronimus, B. F., Kotov, R., Riese, H., Bos, E. H., Hankin, B., ... Oldehinkel, A. J. (2013). Neuroticism and common mental disorders: Meaning and utility of a complex relationship. *Clinical Psychology Review*, 33(5), 686-697.
- Ostrov, J. M., Massetti, G. M., Stauffacher, K., Godleski, S. A., Hart, K. C., Karch, K. M., ... Ries, E. E. (2008). An intervention for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in early childhood: A preliminary study.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4(1), 15-28.
- Ragatz, L. L., Anderson, R. J., Fremouw, W., & Schwartz, R. (2011). Criminal thinking patterns, aggression styles, and the psychopathic traits of late high school bullies and bully-victims. *Aggressive Behavior*, 37(2), 145-160.
- Reed, K. P., Nugent, W., Cooper, R. L. (2015). Testing a path model of relationships between gender, age, and bullying victimization and violent behavior, substance abuse, depression, suicidal ideation, and suicide attempts in adolescents.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55(C), 128-137.
- Renda, J., Vassallo, S., & Edwards, B. (2011). Bullying in early adolescence and its association with anti-social behavior, criminality and violence 6 and 19 years later. *Criminal Behaviour and Mental Health*, 21(2), 117-127.
- Roberts, B. W., & Jackson, J. J. (2008). Sociogenomic personality psychology. *Journal of Personality*, 76(6), 1523-1544.
- Roberts, B. W., & Mroczek, D. (2008). Personality trait change in adulthood.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7(1), 31-35.
- Rigby, K. (2003). Consequence of bullying in school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48(9), 583-590.
- Roy, A. (2002). Childhood trauma and neuroticism as an adult: possible implic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on psychiatric disorders and suicidal behaviour. *Psychological Medicine*, 32(8), 1471-1474.
- Samuel, D. B., & Widiger, T. A. (2008) A meta-analytic review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ive-factor model and DSM-IV-TR personality disorder: A facet level 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8, 1326-1342.
- Sansone, R. A., Lam, C., & Wiederman, M. W. (2010). Being bullied in childhood: Correlations with borderline personality in adulthood. *Comprehensive Psychiatry*, 51(5), 458-461.
- Sansone, R. A., & Sansone, L. A. (2012). Borderline personality and externalized aggression. *Innovations in Clinical Neuroscience*, 9(3), 23-26.
- Saunders, B. E., & Adams, Z. W. (2014). Epidemiology of traumatic experience in childhood.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23(2), 167-184.
- Shiner, R. L., Allen, T. A., & Masten, A. S. (2017). Adversity in adolescence predicts personality trait change from childhood to adulthood.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67(1), 171-182.
- Siegel, R. S., La Greca, A. M., & Harrison, H. M.

- (2009). Peer victimization and social anxiety in adolescents: Prospective and reciprocal relationship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8(8), 1096-1109.
- Sourander, A., Jensen, P., Rönning, J. A., Niemela, S., Helenius, H., Sillanmaki, L., ... , & Almqvist, F. (2007). What is the early adulthood outcome of boys who bully or are bullied in childhood? The Finnish "from a boy to a man" study. *Pediatrics*, 120(2), 397-404.
- Spinhoven, P., Huijbers, M. J., Ormel, J., & Speckens, A. E. M. (2017). Improvement of mindfulness skills during mindfulness-based cognitive therapy predicts long-term reductions of neuroticism in persons with recurrent depression in remission.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13, 112-117.
- Srivastava, S., John, O. P., Gosling, S. D., & Potter, J. (2003). Development of personality in early and middle adulthood: Set like plaster or persistent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41-1053.
- Trull, T. J., Widiger, T. A., & Burr, R. (2001). A structured interview for the assessment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Facet-level relations to the axis II personality disorders. *Journal of Personality*, 69(2), 175-198.
- Ttofi, M. M., Farrington, D. P., Lösel, F., & Loeber, R. (2011). Do the victims of school bullies tend to become depressed later in lif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longitudinal studies. *Journal of Aggression, Conflict and Peace Research*, 3(2), 63-73.
- Vaillancourt, T., Brittain, H. L. McDougall, P., & Duku, E. (2013). Longitudinal links between childhood peer victimization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and academic functioning: Developmental cascad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1(8), 1203-1215.
- Walton, K. E., Krueger, R. F., Elkins, I., D'Accordo, C., McGue, M., & Iacono, W. G. (2017). Personality traits predict the developmental course of externalizing: A four-wave longitudinal study spanning age 17 to age 29. *Journal of Personality*, 85(3), 364-375.
- Widiger, T. A. (2011). Personality and psychopathology. *World Psychiatry*, 10(2), 103-106.
- Wolke, D., Schreier, A., Zanarini, M. C., & Winsper, C. (2012). Bullied by peers in childhood and borderline personality symptoms at 11 years of age: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53(8), 846-855.
- 원고접수일 : 2018. 07. 13.
수정원고접수일 : 2018. 08. 14.
게재결정일 : 2018. 08. 20.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Neurotic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Bullying and Antisocial,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Yeonsu Choe

Sungeun You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aggression and neuroticis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bullying and antisocial,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in adulthood. Totally, 696 adults completed self-report questionnaires, which included the Perpetration-Victimization of the Bullying Scale, the Diagnostic Test for Personality Disorder, the Korean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K-AQ), and the Korean Version of the Big Five Inventory (K-BFI). The study's findings indicated that aggression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bullying behavior and antisocial personality, while aggression and neuroticism fu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of childhood bullying and antisocial personality. Similarly, aggression also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bullying behavior and borderline personality, while both aggression and neuroticism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of childhood bullying and borderline personality.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victimization and antisocial, borderline personality was mediated by emotional aggression, not by physical or verbal aggression. These findings supported our hypothesis that childhood bullying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and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which were mediated by aggression or neuroticism. Yet, the mediating role of neuroticism was revealed on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victimization and borderline personality. This suggests that intervention programs to reduce aggression and neuroticism could be beneficial in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antisocial, borderline personality traits among individuals who have experienced childhood bullying.

Key words : *bullying, antisocial personality, borderline personality, aggression, neuroticism*